



마틴 부씨의 생애 (Ⅱ)

종교회의들

마르틴 그레샤트(Martin Greschat, 1934~)

저자는 1965년에 윈스터 대학의 복음주의 신학부에서 <루터 곁의 멜랑흐톤: 1528년에서 1537년 사이의 칭의론 형성에 대한 연구>(Melancthon neben Luther, Studien zur Gestalt der Rechtfertigungslehre zwischen 1528 und 1537)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9년까지 독일의 기센(Gissen)에 있는 유스투스 리비흐(Justus-Liebig) 대학교의 복음주의 신학부 교회사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레샤트가 저술한 16세기 스트라스부르(Strasburg)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씨에 관한 전기는 가장 최근의 전기로서 <마르틴 부씨: 종교개혁가와 그의 시대>(Martin Bucer, Ein Reformator und seine Zeit)라는 제목으로 1990년에 뮌헨(München)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2002년에 파리에서 *Martin Bucer (1491 - 1551). Un Réformateur et son temps*라는 제목의 불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2004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Westminster John Knox) 출판사를 통해 *Martin Bucer: A Reformer and His Times*라는 제목의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교회사에 관한 그레샤트의 소논문과 저술은 너무 많아 여기서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그의 저술목록(Schriftenverzeichnis Martin Greschat)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muenster.de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의 최근 저술로는 2002년에 출판된 <복음적 기독교와 1945년 이후 독일 역사>(Die evangelische Christenheit und die deutsche Geschichte nach 1945)와 2005년에 출판된 <유럽의 개신교>(Protestantismus in Europa) 등이 있다. 그는 1981-1986년 사이에 12권으로 편집 출판된 <교회사의 인물들>(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의 편집인으로도 유명하다.

번역된 원고는 그레샤트의 책 <부씨: 종교개혁자와 그의 시대>의 “6장. 제국의 종교개혁” 속의 내용 일부이다. 1장은 부씨가 태어나 성장한 배경을, 2장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Erasmus)와 종교개혁가 루터(Luther)에게 부씨가 받은 영향을, 3장은 스트라스부르 초기 시절, 4장은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의 대변인이 된 부씨의 도시개혁을, 5장은 개신교 연합운동의 선봉장이 된 부씨의 활약상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6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개신교와 로마교 사이의 연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직 개신교라는 교회가 로마교와 완전히 결별하기 이전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름스

황제 칼 5세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황제의 재무관 니콜라 페리노 드 그랑벨르(Nicolas Perrenot de Granvelle)가 1540년 11월 25일 라인 강에 자리 잡은 역사적인 도시에서 엄숙하게 회의를 개최했다. 부씨는 이미 11월 1일에 도착해 있었다. 양측은 하계나우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위원회는 11인으로 이루어지며 협상의 출발점이 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결과도 도출 되지 않았다. 가톨릭 측은 결코 자신들끼리도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제후 지역인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팔츠(Pfalz=Palatinate, 팔라티네이트)는 명백하게 프로테스탄트로 기울어져 있었다. 에크의 신학적 입장은 가톨릭 내부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었다. 심지어 로마의 교황 사절단인 지오반니 모로네(Giovanni Morone)와 로렌조 캄페기오(Lorenzo Campeggio)도 서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슈말칼덴 동맹의 회원들은 1540년 9월 멜랑흐톤이 제시한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수정본(Confessio Augustana variata)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협상을 시작하도록 애타게 요청하였으나, 가톨릭 대표들은 힘을 다해 이런 협상들이 시작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팽배하고 정치적 속임과 배신의 모습을 띤 분위기 속에서 그랑벨르는 마침내 대변인을 정하라고 양측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황제의 재무관에게는 단지 프로테스탄트 고위공직자

들의 성공을 막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톨릭 사이의 말다툼과 불화를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다. 필립 멜랑흐톤(Philipp Melanchthon)과 요하네스 에크(Johannes Eck)는 원죄라는 주제로 깊은 토의를 1540년 12월 24일에서 1541년 1월 17일까지 오랫동안 진행했다. 늦은 밤 그들은 그랑벨르의 숙소에서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 다음날 황제의 재무관은 황제의 이름으로 회의를 폐회하면서 다가오는 봄에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라티스본, Ratisbon)에서 열리게 될 제국회의에서 협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련한 정치가였던 그랑벨르는 이로써 칼 5세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적어도 몇몇의 신학자와 정치가의 승인을 얻어낸 글의 형식을 갖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합의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부씨는 분명하게 이 일이 성사되도록 도왔다. 보름스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쾰른 대주교의 대표로 그곳에 온 요하네스 그룹퍼와 동석했다. 이 두 사람은 하계나우에서 이미 서로를 알았고 이 신칭의(믿음으로 의롭게 됨)를 포함한 다수의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동일한 사상을 교환했다. 1538년 발간된 그룹퍼의 『기독교 교육 지침서』(*Enchiridion christianae institutionis*)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부씨가 그를 같은 영혼을 가진 동족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룹퍼 역시 성경과 교부들을 근간으로 하는 신학을 전하려고 했고 편협한 교리를 경계했다. 그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며, 이것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더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신뢰이고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룹퍼는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진일보 전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확신은 또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거부하도록 이끌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약속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그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부씨는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윤리를 강조하는 그룹퍼에 동의했고, 두 신학자 모두 성령의 역사에 큰 의미를 두었다.

부씨와 그룹퍼는 자신들이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일치한다고 확신했다. 비록 각기 다른 용어와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했으며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둘 사이의 확신과 신뢰는 자라갔다. 그러나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이 커져가는 교감으로 인해 차이와 반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서로 속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에게 기만당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화와 동의가 우세했다. 두 사람은 보름스에서 서로 자주 방문하였고 자신들만의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회의는 어느 곳에서도 열리지 않았다. 1540년 12월 14일 그룹퍼와 재무관의 비서 게르하르트 펠트베이크(Gerhard Veltwyck)는 부씨에게 그룹퍼가 비밀 협상을 요청한다고 알려 주었다. 부씨와 카피토(Capito), 그리고 펠트베이크와 그룹퍼는 다가오는 제국의회에서 종교적인 협상의 기초가 될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고자 했다.

이런 소식은 부씨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때까지도 그는 칼 5세가 교회의 개혁을 조금이라도 지지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국가적 회의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었다. 그가 헷세의 필립에게 편지를 썼던 11월 22일 까지도 “독일의 자유와 정의의 가장 큰 적은 제국의 궁정입니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랑벨르는 갑작스럽게 부씨에게 평화를 원하는 지각 있

는 칼 5세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쟁을 옹호하던 무리들은 힘을 잃게 되었다. 부씨는 야콥 슈투름(Jacob Sturm)과 헛세의 재무관 요하네스 파이게(Johannes Feige)에게 자문을 구했다. 두 사람 모두 그랑빌르의 계획에 호의적이었다. 12월 20일 부씨는 필립에게 이미 진행되고 있던 협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위임을 요청했고 필립은 즉시 그를 보냈다.

부씨는 위험한 임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와 카피토는 영주 필립에 보내는 12월 20일자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닌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라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이며 또한 목회적인 동기로 인해 그는 이 일에 참여 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톨릭 진영이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뉘게 되었다. 세속 군주들은 부씨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어찌 되었든 종교개혁의 입장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대주교 군주들은 교회의 재산을 유지시킬 수 있고 세속 군주로서 통치를 지속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쉽게 동의를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동시에 프로테스탄트들도 교회가 존재했던 첫 일세기에 도입된 모든 법률과 의식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여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로써 부씨는 반대 진영에 속했지만 서로 호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현 상태를 잘 이용하여 동의를 얻으며 부차적으로 승인도 받아내려 했고, 결과적으로 교황을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다.

1540년 12월 15일에서 31일까지 협의는 보름스에 있는 그룹퍼의 거주지에서

극비리에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는 그와 부썬 사이의 대화였다. 이 토의에서 나온 23개 항은 그룹퍼가 작성한 초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작성 안에서 부썬이 담당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이 조항들에서는 성인의 숭배와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적인 신앙고백 등과 같은 개인적인 미사의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조항을 끝맺고 있다. 그리고 비록 가톨릭 진영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성경, 전통, 교회의 직분, 원죄, 의롭게 됨, 선한 행위, 교회, 성례, 의식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룬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래의 계획으로는 다른 신앙고백을 한두 진영에서 각각 존경 받는 군주들, 즉 헷세의 필립과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요아킴(Joachim) 2세 모두에게 비밀리에 “보름스 책자(Worms Book)”의 내용을 알리기로 했지만 그랑벨르는 필립이 먼저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자신의 이중 결혼으로 인해 불안한 처지에 놓여 황제의 선처만을 의지하고 있던 영주 필립은 1541년 1월 7일 기센(Giessen)에서 부썬로부터 짧게 그 내용과 목표를 전해들은 후 승인을 하긴 했지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군주들로부터 고립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1월 9일 부썬은 보름스로 돌아 왔다. 그랑벨르는 원하던 것을 얻었다. 그러나 부썬의 목표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가톨릭 군주들의 결속을 점진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작센(Sachsen=색소니, Saxony) 선제후는 부썬의 진행 방식을 매몰차게 거부했다. 루터(Luther)는 물론이고 멜랑흐톤마저도 부썬의 행동에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Johann Friedrich=존 프레드릭, John Frederick)는 작센에 팽배해 있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수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응하고 그 교리를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1541년 봄 레겐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종교회의에 대한 분위기가 아주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레겐스부르크

도시의 사절단을 비롯해 제국의 의회원들, 즉 선제후와 제국의 군주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3월과 4월에 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다. 황제 칼 5세는 2월 23일에 도착했고, 부씨는 3월 10일에 도착했다. 정치 지도자로는 황제의 재무관 그랑벨르가 참석했다. 교황의 사절인 가스파로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 추기경은 가톨릭 진영에서 종교적으로나 성직사회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 되었다. 젊은 시절 그는 루터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경험했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에 일치시켰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콘타리니는 다른 가톨릭 진영의 어느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종교개혁의 신앙적 뿌리에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국회의를 개최 하면서 칼 5세는 종교적 문제들이 더 작은 규모의 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4월 21일 황제는 에크와 율리우스 플룩(Julius Pflug)과 그롭퍼(Gropper)를 가톨릭 진영의 대표로, 그리고 멜랑흐톤과 부씨와 요하네스 피스토리우스(Johannes Pistorius)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대표로 임명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황제는 에크의 임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루터의 반대파로 지난 20십년 동안 줄기차게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작센의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 멜랑흐톤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후보였다. 부써와 그룹퍼와 더불어 플룩과 피스토리우스를 택한 것은 칼 황제가 얼마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알스페트(Alsfed)의 총감독(superintendent)과 헛세 영주의 절친한 친구와 더불어 나움부르크-차이츠(Naumburg-Zeitz)의 선제후 주교는 모두 원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평화를 강력하게 염원하는 후원자였다.

4월 27일 그랑벨르와 팔츠의 백작 프리드리히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화가 시작되자 부써는 물론이고 양측의 기대와 희망은 최고조에 달했다. 에크와 멜랑흐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제목 없이 그랑벨르가 봉인한 문서들을 토의의 기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을 보면 양측이 상대방을 얼마나 수용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레겐스부르크 책자(Regensburg Book)”는 단지 콘타리니와 가톨릭 신학자들이 사소한 수정을 했을 뿐 근본적으로는 그룹퍼와 하려 했는 “보름스 책자”였다. 작센 선제후의 대표인 멜랑흐톤도 더 이상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이 협상의 출발점 더는 주레겐스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새로운 “레겐스부르크 책자”를 비난하는 에크의 통명스러운 주장을 가톨릭 진영의 다수도 지지하지 않았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을 다룬 처음 4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4월 27일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논제는 더 어려운 문제였다. 에크와 멜랑흐톤은 곧 이 문제에 대해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 작성된 문안에 5월 2일까지 양측은 합의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콘타리니와 부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잔뜩 고무 되었다. 각각의 다

른 두 신앙고백 사이에 화해의 걸림돌이 되었던 방해물이 명백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교회론이 논의되자마자 곧 깨어졌다. ‘무엇이 먼저인가?’의 문제, 즉 ‘성경이냐, 아니면 교권, 즉 교회의 가르치는 권리냐?’의 문제였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이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여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점의 차이를 기록하여 둔 채로 회의를 계속 진행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례와 그 중요성을 논하면서 동일한 의견 충돌이 또 다시 일어났다. 세례와 견진(=입교, confirmation)을 다룬 10-13 항에 대해 논의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5월 4일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사와 성찬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콘타리니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 개념을 1215년 로마에서 열린 제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선언된 교리에 의거하여 14번째 항에 넣었다. 그것에 의하면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베네치아의 추기경은 무조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옹호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가톨릭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태도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5월 8일 부씨가 미약한 노력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 회의 전날에 그렇게 고무되었던 독일에서의 기독교 세계의 통일과 쇄신에 대한 희망은 교회와 그 가르침의 권위를 이해하는 입장의 차이로 빔어진 갈등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다. 교황과 그의 지지자들의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중립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부씨의 부단한 노력은 환상에 불과했다. 정확히 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즉 그의 대적들은 잃었던 기반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새롭게 일어난 가톨릭 진영의 힘은 레겐스부르크

종교회의의 중대한 결과물이었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계속 진행 되었다. 6명의 신학자들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5월 14일에서 22일까지 토론했다. 물론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좀처럼 들으려하지 않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역설하는데 주력했다. 부써와 그랑벨르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이런 이유로 6월 8일 그들은 제국 의원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좀처럼 제출했고, 자신들의 견해럼 밝히기 위해 프로테스탄트들의 반대 조항 9개쯤 여기에 덧붙였다. 이러한 동안 교황 측과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합의문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제국 의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좀처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려 뵈써와 그랑벨 7월 5일 가톨릭 진영은 본문에 자신들의 견해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들은 7월 12일 자신들은 모든 관련 내용들은 아욱 이야기를신앙고백서와 그 변증서(Apologia)에 비추어 해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서로에 대한 인내는 관심 밖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부써는 자신의 프로테스탄트 동료들에게 좀처럼 오써와 는 이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교리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조항들에 대해 제국의 의회가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1541년 7월 29일 레겐스부르크 회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어긋난 폐회 선언(Reichstagsabschied)을 발표했다. 이것은 적어도 고위 성직자 군주들에게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개혁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프로테스탄트 토지에 대해 제국의 법적인 보호를 18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칼 5세는 국가적 교회회의를 계속 개최한다고 맹세했으나, 그것은

오직 구두로만 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앙고백의 문제가 다음 제국의회 의제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으나 이 맹세를 어떻게 실현 시킬 수 있는가? 그토록 호의적인 조건 아래에서도 모두 다 실패했는데, 이런 협상이 미래에는 성공하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칼 5세는 회의의 결과에 대해 몹시 실망했다. 신앙고백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분명한 실패였다. 그렇지만 그가 종교 전쟁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가 추구한 합리적인 목표는 슈말칼텐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동맹을 그냥 넘기기에는 그 세력과 자신감이 급성장했다고 황제는 느꼈던 것이다. 그는 레겐스부르크에서 두 번의 기회를 맞이했고 능숙하게 이를 이용했다. 처음 기회는 헛세의 필립과 관련 된 것이다. 칼이 필립의 이중결혼을 눈감아 주는 대신, 필립은 1541년 6월 13일 그 대가로 클레베(Cleve)의 공작이 슈말칼텐 동맹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이 동맹과 프랑스 사이의 동맹이 맺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겠다는 맹세의 비밀 협상을 했다. 여기에 헬더란트(Gelderland)와 주터펀(Zutphen)에 대한 합스부르크 가의 요구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칼 5세는 브란덴부르크의 요아킴 2세와도 동일한 협정을 맺었다. 이 선제후는 슈말칼텐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새로운 교회법을 도입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내었다. 이로써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두 명의 영향력 있는 군주들이 중립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레겐스부르크 회의의 결과는 부씨에게도 커다란 퇴보였고 이 실패는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러나 부씨는 자신의 목표나 방법에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헛세의 필립에게 역량을 총 동원하여 종교회의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지 않고 제국의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한없는 은혜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와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 앞에 마치 벽과 같이 우뚝 서 있어야 하며 교회가 도움을 얻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음번 제국 의회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계속 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분노에 놓이게 된다면 터키 군과 맞서야 할 때 무력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셔는 필립에게 편지를 썼다.

부셔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를 이끈 것은 실용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선 개혁을 극도로 싫어하는 고위 성직자들에 대해 독일 내에서 확산 되어가는 불만족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출판을 통해서 더욱 키워 나갔다. 또한 여러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계속 되고 그 세력을 굳건히 확장해 가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레겐스부르크 회의가 휴회되기 전 7월 14일에 부셔는 교회의 몰락을 극복 할 수 있는 분명한 제안을 담은 비망록을 황제에게 전했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작성한 제안문에서 출발하여 부셔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 레겐스부르크에서 합의 된 조항을 두 진영 간의 화해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각 진영은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성례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각 진영은 목회자의 자유로운 선택, 목회자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목회자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멜랑흐톤이 이 문제 대해 작성한 본문과 함께 이것을 보아야 하며 이는 부셔가 이 시기에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매김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멜랑흐톤이 자신의 교육적 모형인 학교에 준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반면에 부씨는 신학적으로는 멜랑흐톤과 같은 견해를 분명히 하면서도 법적이고 사회적인 상황과 의무를 고려하여 변화의 필요성과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적고 있다.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부씨가 양측에 요구한 서로간의 제한된 인내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스트라스부르 개혁가는 문학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레겐스부르크 회의의 폐막 선언을 주교 군주들에게 주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을 요구했다. 1541년 여름 그는 여러 차례 재발간된 교회의 타락에 관한 작은 책자(*Abusum ecclesiasticorum indicatio*)를 출판하였고 이 책에서는 성경의 기준과 그 성경에 근거한 초대 교회의 규칙으로 성직자들을 쇄신 한다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부씨는 여전히 신성로마제국에서 번져가는 종교개혁의 확산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는 신학과 교회와 관련된 협상을 통해 이 전개 과정을 돕고자 했지만 한 편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제국의 귀족 의원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정치적 힘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1541년 8월 28일 영주 필립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합의를 이룬 [레겐스부르크의] 조항으로 인해 뮌스터(Münster), 팔츠, 클레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그러한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또 다시 그 이후에 발전한 교회와 정치에 관련된 상황들은 부씨의 대담한 계획이 원했던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